

## 공연전시 소개

문화예술전문매거진 <THE MOVE>와 함께 하는

# 이 달의 추천 공연

### 47일간의 오페라축제 〈제17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올해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오페라와 인간’이라는 주제로 오페라 속 주인공들이 처한 각자의 ‘운명(運命)’을 조명한다. 8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47일간 축제 퍼레이드를 펼친다.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오페라 갈라콘서트 〈디·오페라 콘서트 - 미리 보는 축제〉를 무대에 올린다. 8월 8일 오후 7시30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제17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작인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폐막작 〈운명의 힘〉 등 메인오페라에 등장하는 유명 아리아와 이중창들로 꾸며진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전임 지휘자 류명우,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이자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상주연주단체인 디오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소프라노 마혜선과 독일 뮌헨, 프랑크푸르트, 하노버 등에서 활동하는 테너 아서 에스피리투, 그리고 ‘팬텀싱어’로 우리

에게 친숙한 바리톤 김주택이 출연해 벨칸토 오페라의 진수를 들려준다.

제17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개막작은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작 도니체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오페라, 독일 베를린 도이체오페라극장에서 활동 중인 지휘자 로베르토 리치-베르놀리Roberto Rizzi-Brignoli와 유럽 우수 극장에서 다양한 작품으로 활동한 연출가 브루노 베르거-고르스키Bruno Berger-Gorski가 캐스팅되어 완성도 높은 작품이 기대된다. 이어 독일 베를린 도이체오페라극장과 합작, 국내 초연으로 선보일 푸치니의 〈라 론디네〉는 세계 최고의 테너 롤란도 빌라존이 연출한 최신 프로덕션으로, 10억여 원의 비용을 들여 제작한 현지의 무대를 그대로 옮겨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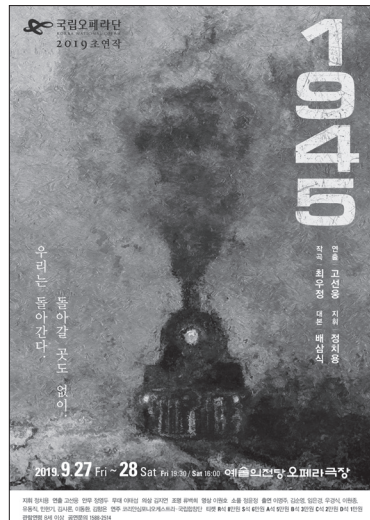
세 번째 메인오페라는 국립오페라단이 야심차게 제작한 창작오페라 〈오페라 1945〉다. 해방 직

후 만주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1945>는 ‘국립’이라는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국립오페라단과 국립합창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 최고의 연주단체들이 총출동해 한국 오페라의 높은 수준과 현주소를 보여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립오페라단과의 합작 오페라, 베르디의 <운명의 힘>이 무대에 오르는데, 소프라노 이화영, 임세경, 테너 이병삼, 그리고 신상근 등 쟁쟁한 출연진들로 기대를 더하게 한다. 2019년 올해는 재단에서 자체제작한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를 제외하고 세 편의 메인오페라가 모두 합작 형태로 제작되어 작품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제적인 축제의 의미를 되새길 것이다. 또한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에 앞서, 대구 각지의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프레콘서트’로 축제에 대한 기대를 높일 예정이다. ‘프레콘서트’는 5월 4일 컬러풀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총 7회 준비되어 있으며,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창단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8.28-10.13 대구오페라하우스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립오페라 <1945>

국립오페라단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오페라 <1945>를 새롭게 제작, 초연 무대를 올린다. 2017년 국립극단의 연극으로 선보여 우리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배삼식 원작의 연극을 오페라로 새롭게 재탄생시킨다. 오페라 <1945>는 해방 직후인 1945년 만주에 살던 조선인들이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머물렀던 전 재민 구제소를 배경으로 그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당시를 살았던 민초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재현한다. 이를 통해 악한 일본인과 착한 조선인으로 대변되는 뻘한 선악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에 대한 질문을 던진



다. 이번 작품은 작가 배삼식이 원작을 직접 오페라 대본으로 개작하고 오페라와 극음악에 매진하여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의미있는 성과를 내은 작곡가 최우정이 작곡했다. 연출은 타고난 감각으로 호평받는 고선용이 맡고 지휘는 정치용이 맡는다. 여기에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이 합류하여 한국 오페라를 선보인다.

최우정 작곡, 고선용 연출, 정치용 지휘로 소프라노 이명주, 김순영, 바리톤 유동직, 우경식, 테너 이원중 등이 출연한다.

4막 오페라, 공연 시간 150분

### 한국 동시대 음악 트렌드를 읽다 <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APaMM) 2019>

세계 음악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내 뮤지션들의 음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2019 에이팜(APaMM, Asia Pacific Music Meeting)>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과 머큐어 앰버서더 울산 호텔에서 열린다. 울산에서 개최되는 에이팜은 서울의 잔다리 페스타, 뮤콘과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국내 뮤지션의 해외 진

출 활성화 그리고 음악산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세계인이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음악, 그중에서도 국악과 월드뮤직, 재즈 등 우리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을 뚜렷이 간직하고 있는 음악에 집중한다. 국내외 음악 전문가를 초빙해 컨퍼런스를 비롯, 멘토링 세션, 아이디어 매칭, 에이팜 라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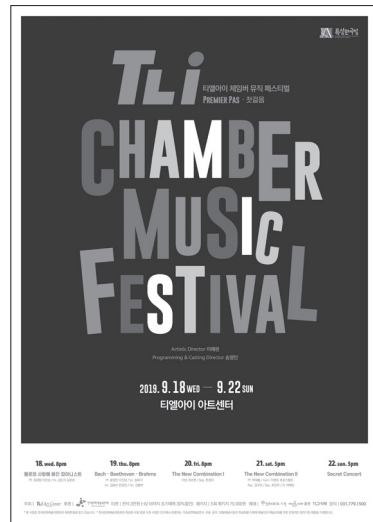
올해 최종 선정되어 쇼케이스를 선보이는 예술단체는 6팀이다. 각자 자신의 음악적 특성 저변에 흐르는 한국적 속성이라는 뿌리는 공통 분모로 발현되며 이는 에이팜의 성격을 나타낸다. 일회성 축제와 다른 에이팜의 차별화된 특징은 지속가능한 울산의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음악도시 브랜드 창출이라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 올해 쇼케이스 선정팀은 △그레이바이실버(Gray by silver) △반디(VANDI) △사위(SaaWee) △억스(AUX) △헤이스트링(Hey String) △황진아(Hwang Gina) 등 6개 팀이다.

9.20-9.22 머큐어 엠버서더 울산 호텔. 태화강국가정원



### 티엘아이 체임버 뮤직 페스티벌 Premier Pas (프리미 빠) · 첫 걸음

가을의 문턱에서 특별한 실내악축제가 열린다. 편안한 클래식 연주 환경과 최상의 음향이 강점인 티엘아이 아트센터에서 마련한 가을 실내악 음악



축제는 기획 단계부터 연주자들이 참여해 컨셉과 공연 프로그램 구성까지 함께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젊은 연주자들이 대거 출연해 새로운 감각의 페스티벌을 만든다.

감각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 송영민이 프로그래밍 디렉터를 맡아 이예린 예술감독과 호흡을 맞춰 페스티벌의 연주자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페스티벌의 첫째 날에는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새로운 도전- 첼로와 사랑에 빠진 피아니스트>라는 주제로 피아노 이진상과 첼로 김민지, 피아노 정재원과 첼로 심준호가 짝을 이뤄 쇼팽과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서정을 수놓는다.

둘째 날에는 <3B: Birth(탄생) - BACH / Brilliant(찬란함) - BEETHOVEN / Blossom(꽃피움) - BRAHMS>를 주제로 'B'로 시작하는 세 작곡가의 곡을 연주한다. 클래식음악을 탄생시키고 기초를 다진 음악의 아버지 바흐, 찬란하게 빛낸 베토벤, 화려하게 꽃피운 브람스의 곡들을 만날 수 있다.

셋째 날에는 <The New Combination I: 현악 4중주 & Voice>라는 주제로 한예중 출신의 젊고 실력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이든 콰르텟과 정상의 소프라노 한경미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넷째 날에는 <The New Combination II: 이게 다 나무로 만들어졌다고?!>라는 주제로 나무로 만들어진 다양한 악기들의 하모니를 만나볼 수 있다. 플루트 이예린, 리코더 김규리, 첼발로 아렌트 호로스펠트, 색소폰 최진우, 그리고 피아노 박재홍이 함께한다. 오페라와 현대 곡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레퍼토리 구성이 일품이다.

이번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에는 <Finale Gala Concert: Secret Concert> 컨셉으로 출연자와 프로그램을 당일 공개한다. 어떤 연주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대미를 장식할 지 기대가 모아진다.

9.18-22 티엘아이 아트센터

### 현실과 영화의 교차 프로젝트

####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

브로드웨이 히트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이 한국 초연 무대를 올린다. 1940년대 할리우드 분위기를 ‘색’의 대비를 통해 현실과 영화 속 시점을 나누어 선보이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무대로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시나리오 작가 ‘스타인’ 역에는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최재림, 시원한 가창력과 강렬한 연기로 존재감을 과시해온 강홍석이 확정되었다. 작가 스타인이 만든 영화 시나리오 속 주인공 탐정 ‘스톤’ 역은 이지훈,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테이가 맡는다. 영화 제작자 ‘버디 피들러’와 영화계의

대부 ‘어윈 어빙’ 역에는 썬스틸러 정준하와 개성 강한 연기로 사랑 받는 배우 임기홍이 합류한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버디의 부인 ‘칼라 헤이우드’, 영화 속에서는 탐정 스톤을 곤경에 빠트리는 베일에 싸인 팜프파탈 ‘어로라 킹슬리’ 역으로는 독보적인 캐릭터 소화력의 백주희와 가희가 맡는다. 현실에서는 작가 스타인을 사랑하는 버디의 비서 ‘도나’, 영화 속에서는 탐정 스톤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조력자이자 비서 ‘올리’ 역을 맡은 배우로는 폭발적인 성량과 무대 장악력을 선보인 배우 김경선과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사랑받는 박혜나가 합류했다. 현실에서는 스타인의 유능한 여자친구 ‘게비’, 영화 속에서는 스톤의 헤어질 애인이자 여가수 ‘바비’역을 맡은 배우로는 리사와 방진의가 맡는다.

8.8-10.20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고시계는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예술전문지

더 **MOVE** 와

‘문화로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공연 및 더무브 구독 문의: 02.523.7356